“이런 일자리라도 있어 다행”…막막한 서민들 희망을 보다

광주 ‘코로나 희망일자리’ 4314개 신청 현장 가 보니

생활방역·행정인턴 등 구청·행정복지센터 문의·신청 잇따라
병원비·학비·상환금 마련 위해 퇴직자·대학원생 등 발걸음
“소중한 일자리로 숨통 트이길”…집밖 못 나선 노인들도 반겨

“단순 일자리 찾기도 힘든데 너무 다행이에요.”

광주시가 정부 지원을 받아 추진중인 ‘희망일자리사업’에 신청자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일자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처럼 힘든 상황에서 월 최대 117만원을 벌 수 있다는 점에서다. 온·오프라인 신청을 받기 시작한 첫 날인 15일 광주지역 5개 구청과 행정복지센터는 지원자들의 문의와 신청이 잇따랐다.

접수 첫날인 이날 하룻동안 무려 583명이 신청서를 냈다. 코로나 여파로 힘들어하는 지원자들이 대부분이었다. 일자리 종류도 다양하고 어렵지 않은데, 하루 5시간씩 5일 일해 116만7000원을 받을 수 있어 선호도도 높았다.

광주시는 코로나로 급증한 보건 분야 업무 공백을 메우는 것을 포함한 200개가 넘는 분야에서 4314개의 일자리를 마련했다.

학교 방역 업무나 출입자 발열 체크를 하거나 면 마스크를 제조하는 등 생활방역 분야가 1772개로 가장 많고 행정인턴, 차량등록민원 안내도우미,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관리 업무 등을 맡는 청년일자리 분야 335개나 된다.

시각장애인 활동보조, 보건소 진료실 상담보조, 건축물대장 전산화 작업을 맡는 일자리 분야도 891개, 공원과 하천 주변을 돌아다니며 쓰레기 정화활동을 펼치는 일자리도 1316개에 달한다.

광주지역 모 대학 교육대학원에 다니는 김모(25)씨는 이날 북구청을 찾아 학교방역·보건업무를 보조하는 희망일자리 신청서를 냈다.

김씨는 “대학원 학비에 보태려고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는데 코로나19 여파로 아르바이트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면서 “아르바이트 할 데는 없고 지원자들이 많아 경쟁이 치열한데 이런 기회가 있어서 지원했다”고 말했다.

강모(55)씨는 입원 치료중인 부인때문에 꼭 필요하다며 ‘희망일자리’를 신청했다.

강씨는 “최근 30년동안 운영하던 사업이 망한데다, 산후도우미 일을 하던 부인까지 유방암 수술을 받아 병원비로 50~70만원을 납부해야하는 상황”이라고 울먹였다.

12년간 다니던 백화점 의류매장에서 퇴직했다는 윤모(여·49)씨도 남구청 일자리센터를 찾아 학교 보건업무·체육시설 방역업무에 지원했다.

윤씨는 “아파트 대출금도 많이 남았는데 갑작스럽게 일을 그만두게 됐다”며 “노후계획도 틀어져 막막한 상황에서 ‘희망일자리’를 얻게되면 숨통이 좀 트일 것 같다”고 말했다.

집 밖을 나서지 못했던 노인들도 반기는 분위기였다.

박모(여·66)씨는 “코로나로 경로당, 문화센터 다 문을 닫았다”면서 “돈도 벌고 외부 활동도 할 수 있어 덜 답답할 것 같아 지원했다”고 말했다. 박씨는 “무슨 일이든 지금보다 나을 것”이라며 반겼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 감염병 예방법 위반 69명 입건

경찰이 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단속 활동에 나서 69명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15일 자가격리 수칙과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착용을 위반한 69명을 적발, 수사가 마무리된 57명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자가격리조치 위반 12명,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48명,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 7명, 거짓진술 1명, 입원조치거부 1명 등이다.

서부경찰의 경우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긴 광주시 서구 치평동 화장품 방문판매점 업체 대표 A씨 등 20명을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10일 집합금지 시설임을 알리는 공고문이 붙어있음에도 사무실에 모였다가 적발됐다.

B씨 등 16명은 집합금지 기간인 지난 5월 13일 서구 등에서 유흥주점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확진 사실을 통보받은 뒤 잠적, 전남 영광의 한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 일하러 나갔다가 10시간 만에 경찰과 보건당국에 붙잡힌 118번 확진자와 금양오피스텔 역학 조사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해 동선파악에 혼선을 준 광주 37번 확진자도 입건됐다.

감염병예방법상 격리조치 위반은 1년 이하 징역·1000만원 이하 벌금, 집합금지명령 위반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코로나19와 관련된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처벌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농민수당 도입 촉구 광주시농민회와 진보당광주시당 관계자들이 15일 오전 광주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지역 농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농민수당조례’의 조속한 통과와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자가격리 어기고 미나리 캐러 간 50대 벌금 150만원

광주지법 형사 3단독 김승휘 부장판사는 15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4일 오후 3시 40분부터 1시간 동안 주거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3월 21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인천공항으로 귀국하는 비행기 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보건소로부터 4월 2일부터 4일까지 사흘간 자가격리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A씨는 자가격리 기간 여러 사람이 함께 쓰는 공간이 아닌 곳에 있어야 하고 격리 장소를 이탈해서는 안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주거지를 이탈해 미나리를 캐러 담양까지 이동했다”고 밝혔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고흥 윤호21병원 화재 참사
사망 1명 추가…4명으로 늘어

고흥군 윤호21병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1명 더 추가됐다.

15일 고흥경찰에 따르면, 고흥 윤호21병원 화재 현장에서 구조된 A(71)씨가 조선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져 사망자가 4명으로 늘었다.

앞선 사망자 중 2명은 6층 입원실에서 치료를 받던 환자들로, 1층에서 불이 난 줄 모르고 계단을 이용해 대피하다 2층과 3층 사이 계단 창문 근처에서 발견됐다. 나머지 1명은병원 치료를 받다 사망했다. 현재 병원에서 6명이 치료를 받고 있고 이중 한명은 생명이 위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음주운전 0.05%…항소심도 무죄 이유는?

“기계·체질 따라 측정 오차…0.05% 이상으로 단정 어려워”

A(34)씨는 지난해 4월 20일 광주시 남구 대남대로 앞길에서 경찰의 음주 단속에 걸렸다. 광주시 서구 치평동에서 2.5㎞를 운전하다 경찰 지시에 따라 차량을 멈춘 A씨의 음주 수치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당시만해도 면허정지 ‘턱걸이’ 수치였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면허정지)은 지난해 6월 25일부터 0.03%로 강화됐다.

A씨는 검찰의 약식명령(벌금) 처분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검찰이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이유없다”며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5%였다 하더라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음주측정기는 기계 자체에 내재적 측정오차가 있고 체질에 따라 측정치가 달리 나올 수 있으며 기계 오작동 내지 고장 가능성도 전적으로 배제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례를 반영했다. A씨의 음주 수치가 입안을 헹구지 않은 상태에서 0.05%로 측정됐음에도, 경찰이 입안을 헹군 다음 음주측정을 요구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음주수치를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없다고도 했다. A씨의 운전 거리도 2.5㎞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같은 변수를 고려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이 운전을 시작할 당시’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었다.

항소심도 1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검찰이 “음주측정기의 경우 피측정자에게 유리하도록 하향편차 -5%가 적용돼 음주 수치를 표시한다”며 항소했지만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세기, 신체적·심리적 상황별 호흡수에 따라 혈중알코올 농도는 다소 달라질 수 있다”는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음주 수치가 다르게 측정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경계선에 근접한 혈중알코올 농도가 측정됐을 경우 채혈을 강요할 수 없더라도 반복 측정을 통해 혈중알코올 농도가 음주운전 기준치 이하로 측정될 여지가 없는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게 항소심 재판부 입장이다.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하강기에 있었더라도 운전거리가 2.5㎞에 불과하고 측정치가 정확히 0.05%로 음주운전 여부를 나누는 경계선에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운전을 시작할 무렵 0.05% 이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앞으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할 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2계>
※QR코드:법원경매정보 웹으로 접속됩니다.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단위:원]	비고
[아파트]					
2018타경 71657	1	남구 봉선중앙로46, 105동 8층 806호 84.96㎡	아파트	398,000,000 398,000,000	
2020타경 887	1	북구 운암동 366-2 운암동롯데캐슬 305동 12층 1201호 59.8159㎡	아파트	213,000,000 213,000,000	
2020타경 1057	1	나주시 영나로2421, 202동 15층 1505호 [용산동,용산2단지주공아파트] 49.62㎡	아파트	53,000,000 53,000,000	2020년2월현재관리비560,000원이미납된상태[현황조사보고서참조]
2020타경 3350	1	북구 삼정로50, 305동 14층 1404호 [두암동,두암3단지주공아파트] 41.85㎡	아파트	78,000,000 78,000,000	
2020타경 4827	1	광산구 왕버들로132번길22, 210동24층2402호[수완동,수완2차우미린아파트]84.7885㎡	아파트	405,000,000 405,000,000	
2020타경 63314	1	서구 발산로36, 108동 7층 701호 [양동,양동휴먼시아] 84.87㎡	아파트	270,000,000 270,000,000	2019년7월부터관리비미납된상태라고함[현황조사보고서참조]
2020타경 64232	1	북구 양산제로50, 102동 4층 407호 [연제동,새한아파트] 59.95㎡	아파트	105,000,000 105,000,000	
[단독주택,다가구주택]					
2020타경 3879	1	북구 운정동 201 337㎡	대	161,006,600	일괄매각,목록1남
		북구 주룡길 7-9 1층91.88㎡ 부속건물 1층 변소3.12㎡ 제시외 구조물 18.2㎡[제시외건물포함]	단독주택	161,006,600	서측일부가인접지건물침범으로추정[감정평가서참조]
[기타]					
2019타경 15388 2019타경 72657 [중복]	1	광산구 황룡동 407 66㎡	공장용지	1,852,633,400	일괄매각,제시외건물포함매각,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제6조기계.기구포함[그중2점소재불명,감정평가서참조],목록4지상위에신축중중단된타인소유의철골구조물은매각제외,건물내부에소재하는소유자미상다수의제시외기계기구매각제외,이동가능한컨테이너2동매각제외
		동소 411-8 407㎡	공장용지	1,852,633,400	
		동소 415-3 478㎡	공장용지		
		동소 416-1 434㎡	전		
		광산구 송도로114번길 78 [황룡동,제가동] 263.2㎡ 99㎡ 제시외 공장 등 154.6㎡	창고시설		
		동소78황룡동,제나동207㎡제시외기계기구	제조업소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단위:원]	비고
2019타경 16367 2020타경 3473 [중복]	1	장성군 삼서면 소룡리 229-6 282㎡[현황단독주택부지로이용중]	대	151,915,400 151,915,400	일괄매각,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제6조기계.기구포함[그중1점소재불명,감정평가서참조]제시외건물포함,목록1~2소재하는제시외건물매각제외,목록3과목록5는일단지로이용중
		동소 229-14 56㎡[현황대지,단독주택부지로이용중]	임야		
		장성군 삼서면 유평리 401-3 545㎡[현황정미소건부지로이용중]	대		
		장성군 삼서면 소룡길42 207.0㎡제시외차양등211.7㎡,기계기구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제6조기계.기구포함[그중1점소재불명]	정미소		
		장성군 삼서면 유평리 400-3 522㎡ [현황일부전으로사용중][물건번호1:목록4건물내에소재하는제시외기계기구매각제외]	공장용지		
[대지/임야/전답]					
2020타경 3770	1	광산구 고룡동 518-2 840㎡[현황전]	답	50,268,000 50,268,000	일괄매각,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권1회로제한.2020타경65303중복
		동소 518-16 864㎡[현황전][물건번호1:공유자이대섭지분2분의1전부,제시외수목매각제외,농지취득자격증명요]	답		
2020타경 3879	2	북구 운정동 108 1041㎡[현황일부묘지,농지취득자격증명요,향후원상회복명령발하여질가능성있음[사실조회회신서참조]]	전	59,337,000 59,337,000	분묘[소유자의조상묘]3기소재
	3	담양군고서면주산리716-4 489㎡[현황폐기물처리장.지상소재컨테이너창고매각제외]	전	19,071,000 19,071,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20타경 3916	1	서구 화정동 산153 1864㎡	임야	27,021,100 27,021,100	일괄매각,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권1회로제한
		동소 산153-5 2189㎡	임야		
		동소 산153-6 4377㎡[물건번호1:공유자김지수,김지은지분각204분의3전부]	임야		
2020타경 4483	1	북구 화암동 365 823㎡[현황묵전]	전	33,743,000 33,743,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20타경 63062	1	영광군 백수읍 약수리 45 2017㎡[공유자정덕용지분5분의1전부]	답	4,639,040 4,639,040	일괄매각,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권1회로제한,농지취득자격증명요
		동소 15 1035㎡[현황일부진입도로로이용중.공유자정덕용지분5분의1전부]	답		
2020타경 63734 2020타경 67927 [중복]	1	장성군 진원면 상림리 747-5 5121㎡[농지취득자격증명요]	전	56,500,600 56,500,600	일괄매각,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권1회로제한,제시외수목매각제외
		동소 산206-7 4860㎡[물건번호1:현황일부죽림,임야,도로,전.공유자박정윤지분8분의1전부.일부에연고미상분묘수기소재]	임야		
2020타경 64003	1	곡성군 곡성읍 죽동리 245 407㎡[현황전]	대	113,236,000 113,236,000	일괄매각
		동소 246 694㎡[현황일부묵전및나대지]	대		
2020타경 64515	1	광산구 임곡동 산77 5554㎡[현황일부분묘.공유자정상연지분39분의2전부]	임야	4,557,120 4,557,120	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권1회로제한,분묘소재
2020타경 65709	2	화순군 춘양면 가동리 590-7 1723.7㎡	답	29,302,900 29,302,9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20타경 65815	1	장성군 북이면 오월리 284-9 136㎡[현황전]	대	10,608,000 10,608,000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단위:원]	비고
[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2020타경 3589	1	광산구 용아로400번길30, 3층 에이동-306호 [하남동,테라스56피크닉몰] 84.946㎡	근린시설	441,000,000 441,000,000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불법형질 변경으로 인한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 매수인이 이를 부담할수 있음.
② 공유자가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의한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 그 매수신고 후 최초로 진행되는 매각기일에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기일에서는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당해 기일에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 최저매각가액을 공유자우선 매수신고액으로 본다.

2. 매각기일 : 2020. 7. 30.[목] 10:00
3. 매각결정기일 : 2020. 8. 6.[목] 16: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입찰법정
5. 매각방법
① 입찰법정에 비치된 기일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할[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일명 보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
④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절차가 종결되는 즉시 반환합니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됩니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합니다. 다만, 재매각기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여 , 따라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저당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등록세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고,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촉탁하여 줍니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력없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주의사항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날짜보다 먼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자등록신청을 마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② 일반인들의 열람에 제공하기 위하여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 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 등을 우리법원 민사집행[신청]과에 비치하여 열람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특별매각조건의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법정에 나오실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하오니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은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소유권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⑥ 공고된 물건중에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⑦ 신문에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우리법원 게시판의 공고나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매각기일 공고의 요지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uction.go.kr[법원공고 → 법원경매정보선택]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외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제공하도록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혹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매각불허가 신청이나 항고, 대금감액신청이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관심있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20. 7. 16.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김신호